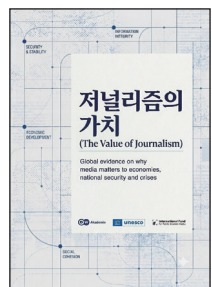




언론 자유 감소하면 GDP 성장률 1~2% 하락

유네스코 보고서, 저널리즘 가치 객관적 수치로 증명
“언론, 경제발전·국가안보·재난 대응에 긍정적 영향”

저널리즘에 투자된 1달러는 100달러 이상의 공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유네스코(UNESCO)·독일 국제 방송 아카데미(DW Akademie)·공익저널리즘국제기금은 지난 6월 22일 ‘저널리즘의 가치: 경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글로벌 근거’ 보고서(사진)를 발표하고, 저널리즘이 △경제발전 △국가안보 △위기 및 재난 대응에 미치는 효과와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입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학제 간 연구를 집대성해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보고서 번역본 전문 및 원문은 신문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가치 보고서

언론 자유에 비례하는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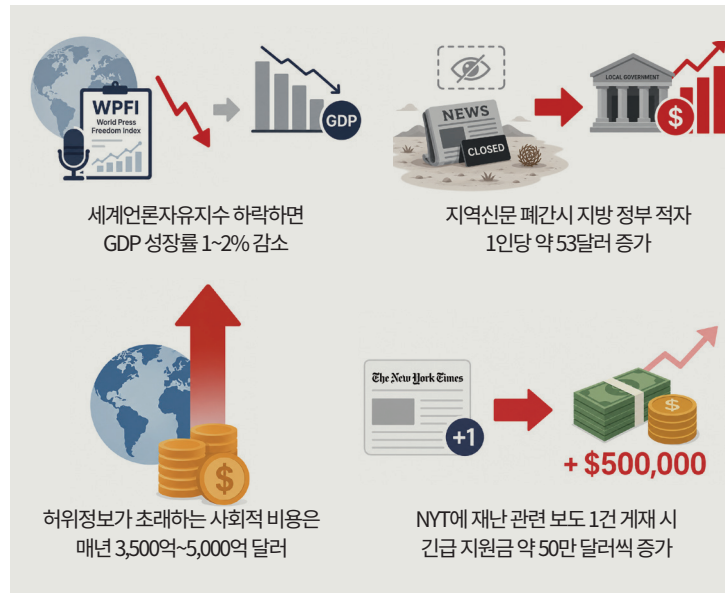
저널리즘은 민주주의 유지·발전뿐 아니라, 부패를 줄이고, 기업 활동비용을 낮추며, 자원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보고서에서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탐사보도는 초기 제작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보다 훨씬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환원했다. 경제학자 제임스 해밀턴(James Hamilton)의 연구에 따르면,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보호 관찰제도 조사보도는 기사 제작에 투입된 1달러당 첫해에만 287달러(한화 약 44만 3천 원)의 순이익을 창출했다. 또한 국제 조직범죄 및 부패 보도를 취재하는 탐사보도 프로젝트(OCCRP)는 자사 보도를 통해 2009년 이후 120억 달러(한화 약 18조 5,316억 원) 이상의 자금 회수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10억 달러가 미국으로 반환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이 조직에 지원한 예산 1달러당 약 100달러의 투자 수익률(ROI)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언론 자유와 경제성장 사이에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순위가 하락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손실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언론의 파급력은 주로 대형 탐사보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의회 회의, 법원 판결, 기업 공시 등 일상적인 내용을 취재·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원과 기업인의 행동을 영향을 미쳤다. 학계에서 ‘감시자 효과(sentinel effect)’라 부르는 이 현상은, 기사화 여부와 상관없이 감시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권력층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이 감시망이 사라



진 ‘뉴스 사막(신문 폐간 지역)’의 경우, 일상적 견제가 불가능해지면 지방 정부 적자가 1인당 평균 약 53달러(한화 약 8만 2천 원) 증가했다. 또한 기업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뉴스 사막 지역의 기업은 회계부정이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발 시 평균 제재금액도 15.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언론 신뢰 높을수록 허위정보 대응 능력 높아

저널리즘은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정보공작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고, 분쟁과 전쟁의 위험을 낮춤으로써 국가안보 강화에도 기여한다.

허위정보는 국내외 세력, 사회문화적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산·확산된다. 전 세계적으로 허위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년 3,500억~5,000억 달러(한화 약 526~7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경제포럼(WEF)은 허위정보를 2026년 세계가 직면한 두 번째로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GDP의 약 0.1%, 즉 전 세계 총 군사비 약 1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1,263억 달러, 한화 약 190조 원)만 투자하더라도 모든 시민에게 건 강한 공공미디어와 안전한 정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독립적인 저널리즘은 이러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실증적으로 검증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2025 디지털 뉴스 리포트(Digital News Report)’에 따르

면 시민들은 온라인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때 가장 신뢰하는 뉴스 매체를 최우선 수단으로 이용한다. 또한 프랑스 통신사 AFP의 팩트체크 작업은 페이스북 내 허위정보 확산을 약 8% 감소시키고 재공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얻었다. 18개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공영방송이 발달하고 언론 신뢰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2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권침해 수준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국가적 재난·위기 대응에도 저널리즘 핵심 역할

저널리즘은 국제사회 속 재난과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 구호 방식 개선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뉴스 보도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규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2,300건 이상의 재난 분석 연구에서는 뉴욕타임스에 관련 기사 한 건이 추가될 때마다 미국의 긴급 지원금이 약 50만 달러씩 증가하는 정량적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에서는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으로 말라리아, 폐렴 등 치명적인 질병을 지속적으로 알려 보호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그 결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연평균 7.1% 감소했으며, 연구진은 이를 통해 어린이 약 2,967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산했다.

신문협회 ‘신문홍보 만화·영상 공모전’ 개최

접수 기간은 7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문협회는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홍보 만화·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신문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신문의 특장점 △신문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이며, 공모 기간은 7월 20일(월)부터 10월 10일

(토)까지다.

신문홍보 만화 공모전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1~4컷 분량의 디지털 작품 또는 손그림 작품을 접수받는다. 공모 작품 수 제한은 없으며, 이메일(webmaster@press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문홍보 영상 공모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30초 이상~60초 이내(최대 300MB)의 세로형 작품을 한국신문협회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작품 수 제한은 없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는 상금(만화 4명 각 100만 원·영상 1명 200

만 원)과 상패를, 우수상 수상자는 상금(만화 4명 각 50만 원·영상 2명 각 100만 원)과 상패를 각각 받는다. 수상작은 10월 말 발표하며 자세한 응모 방법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분	신문홍보 만화 공모전	신문홍보 영상 공모전
대상	초·중·고·대학생	전 국민
분량	1~4컷	30초 이상~60초 이내(최대 300MB)
출품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상자	총 8명 (부문별 대상 1명, 우수상 1명)	총 3명 (대상 1명, 우수상 2명)
상금	총 600만 원	총 400만 원

정보통신망법이 언론자유에 미칠 영향과 언론이 해야 할 일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대체로 상당 기간 언론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몇몇 대형 오보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미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거나, 입수한 자료에는 희미한 의혹의 흔적만 있는데 작심하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엄청난 과장이 일 것이 뻔한 사안을 반론조차 듣지 않고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녹취가 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보도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들은 이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 끝에 개정된 법률 조항들이 지난 7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 언론은 대체로 언론중재법만 신경 쓰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10억 원 과징금’ 같은 신무기를 장착한 정보통신망법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익숙한 취재·보도 관행 돌아볼 기회
이 법률을 놓고 정치권이 벌이는 뒤늦은 공방은 일단 접어두자. 지금 와서 논란을 벌인다고 이 체제가 쉽

게 흔들릴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횡행하는 것을 보면 논의가 그렇게 진지해 보이지도 않는다. 언론으로서의 차라리 진지하게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익숙한 취재·보도 관행을 돌아볼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

언론이 챙겨볼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불법이거나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불법’이거나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할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이거나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강조점을 바꿔놓으면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불법’이거나 허위조작정보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보도한 경우, 당연한 확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건너뛴 경우, ‘허위여도 어쩔 수 없다’며 무

기고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번에도 도입된 제도들에 전통 매체가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는 두 방향의 조언을 하고 싶다. 먼저 사실성과 공익성이라는 전통적 언론윤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언제든 이런 원칙에 따른 판단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책임하게 보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도 5천만 원까지 판사 재량으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걱정거리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배상 범위가 넓다는 등의 특수성을 떠나, 가급적 배상액을 높이라는 입법 취지를 실천하고 나서는 재판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5배 배상제’가 함께 적

용되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언론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

사실성·공익성 원칙 강화해 망법 대비해야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에 전통 매체가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는 두 방향의 조언을 하고 싶다. 먼저 사실성과 공익성이라는 전통적 언론윤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복수의 독립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고, 비록 사실이라도 공적 토론을 위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온갖 복잡한 윤리 규범들은 궁극적으로 사실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수렴한다.

다음으로, 언제든 이런 원칙에 따른 판단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3자, 특히 판사가

볼 때에도 사실성과 공익성을 충실히 따져서 보도했다고 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과 보도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모호한 사안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는 게 좋다. 내부 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불법이나 허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제시되면 보도를 멈춰야 한다.

현대 언론윤리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중요하게 본다. 보도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사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보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거친 표현을 자제하고 충분한 반론을 실어주어야 한다.

보도한 뒤라도 잘못을 발견하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바로잡아 불필요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징벌적 손배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 언론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보도태도다. 정당한 권력 감시를 징벌적 손배나 과징금으로 위협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도, 품격 있고 인권을 중시하는 보도 태도가 중요하다.

언론·정치·법조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잇단 우려

한국기자협회·서울외신기자클럽·변호사단체, 망법 반대 성명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지적됐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내외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미국 현지 시각)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하

고 있다”며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반발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 법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및 개정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은 엄정히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상

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

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관훈클럽, 해외연수 언론인 모집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관 훈 클 럽 정 신 영 기 금 은 2027~2028학년도 해외연수 언론인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3명 이내며, 언론사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자는 누구나 신

청할 수 있다. 연수 기관은 지원자 본인이 연수 허가를 받은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이다. 지원금은 1년 체재비 3만 6,000달러(월 3,000달러×12개월), 등록금

(5,000달러 이내), 본인 항공료 등이다. 구비서류는 소속사 대표 추천서(1사 1인), 서약서, 국·영문 이력서, 국·영문 연수계획서,

최근 2년 내 TOEIC 성적표 등이다. 서류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웹하드(www.webhard.co.kr)로 신청하면 된다.

英 정부, SNS서 ‘검증된 언론’ 우선 노출 추진

유튜브·SNS 피드 상단에 언론사 콘텐츠 배치

영국 미디어 전문 매체 프레스가제트는 지난 6월 22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콘텐츠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 및 동영상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프레스가제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이 공간을 주목하라: 영국 미디어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A New Strategic Direction for UK Media)’ 정책 제안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영국 정부는 전국 및 지역 언론사를 우선 노출 대상에 포함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셜 및 동영상 플랫폼에서 뉴스 관련 검색 시 언론사 콘텐츠가 검색 결과와 피드 상단에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책 제안서는 공영방송 콘텐츠가 제3자 동영상 플랫폼에서 ‘쉽게 발견되고 추천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이언 머리(Ian Murray) 장관은 “우선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와 입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BBC, ITV, 스코틀랜드 방송사 STV, 채널4, 웨일스

의 S4C, 채널5와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를 우선 노출 대상으로 제시했다.

“BBC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언론이 대상”

영국의 전국 및 지역 신문·뉴스 미디어를 대표하는 뉴스미디어연합(NMA)은 정부의 우선 노출 정책이 BBC 등 공영방송에만 적용해서는 안 되며,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언론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MA의 테오 밤버 CEO는 “(우선 노출 대상에서) 독립 언론사가 제외될 경우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MA는 우선 노출 대상 언론사의 범위를 지난 2023년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에서 규정한 ‘공인된 언론사’ 기준보다 좁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페이스북·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IT플랫폼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서는 ‘공인된 언론사’ 기준을 ①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의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②편집 과정을 거친 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 ③언론 윤리 강

령 준수 ④영국 내 사업 기반을 갖춘 언론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언 머리 장관은 “이것은 BBC와 ITV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언론과 지역 미디어 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라며, “(정책 수혜 대상인) ‘공공서비스미디어’의 범위를 조직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정의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 장관 리사 낸디(Lisa Nandy)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뉴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증된 언론사 콘텐츠를 SNS에서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로 독자 마음 읽는다…해외 언론사의 구독 유지 전략

일반 독자 확보해 ‘슈퍼 유저’로 전환

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 유형별 맞춤 경험 제공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은 지난 6월 23일 언론사들이 독자 인사이트를 활용해 독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구독 유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6월 9~16일 진행된 INMA 구독자 유지 마스터클래스(INMA Subscriber Retention Master Class)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가디언, 장기적인 구독위해 온보딩 개선

가디언(The Guardian)은 가입 후 2~4개월 동안 후원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고 저널리즘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디언이 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후원자가 된 이후 첫 4개월 동안 유지율 하락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규 회원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때 쉽게 적응하도록 돕는 초기 경험인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사진>을 장기적인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핵심 단계로 보고 온보딩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후원자에게 과도한 선택지와 반복적인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또 일부 후원자는 결제를 완료한 후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이

새로운 온보딩 경험: 웹

액션 1: 계정 생성 완료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선택한 내용이 맞는지 안심하고 싶어요’

1. 계정 생성 완료

2. 이메일 인증

3. 결제 수단 등록

4. 구독 계획 선택

5. 혜택 안내

가디언의 새로운 온보딩 경험 흐름도. 사용자가 구독 결제를 마친 후 계정을 생성하고 온보딩을 완료하도록 유도함. 단계별로 ①계정 생성 유도 및 결제 내역 확인 ②인증코드 입력 요청 ③사용자 이메일에서 인증 코드 확인 ④인증코드 입력 ⑤온보딩 완료 및 환영.

는 초기 이용 경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디언은 혜택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독자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새로운 후원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기본 설정도 마치기 전에 여러 기능과 선택지를 안내받는다.

가디언의 목표는 일회성 참여가 아닌, 일상적인 이용 습관을 형성해 장기적인 구독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다. 새로운 온보딩 프로그램 도입 결과, 가입 후 첫 24시간 이내 로그인 비율은 87%로 이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으며, 후원자의 35%는 가입 10일 이내에 앱을 설치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WSJ, 독자 페르소나를 편집 전략에 통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5개의 대표 독자 페르소나<표>를 구축하고, 이를 뉴스룸 편집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WSJ은 독자마다 관심사와 요구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페르소나를 설정했으며, 이를 편집자들이 실제 기사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페이지뷰 중심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구독자 관심도(Subscriber Interest) △참여 시간(Engaged Time) △목적성 있는 도달(Purposeful Reach) △전환율(Conversion Rate) 등 4개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기사 성과를 1~5

대표 독자 페르소나	
① 탐험가 Explorers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초기 단계 독자
② 프리 스위트 Pre-suites	커리어 성장을 위해 심층 콘텐츠를 찾는 예비 전문가 그룹
③ 현재 핵심 독자 Current Core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기반
④ 차세대 Next Gen	매체의 미래를 책임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잠재 독자
⑤ C-스위트 C-suite	전략적 통찰과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하는 고위 의사결정권자

점으로 평가하는 맥락 기반 대시보드를 구축했다.

이러한 독자 페르소나와 성과 지표는 편집 전략에도 반영되고 있다. WSJ은 탐험가와 차세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확대하고, 가벼운 독자층을 위한 개인 재무·커리어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심층 저널리즘을 다양한 형식으로 재구성해 더 넓은 독자층에게 제공하고 있다. WSJ은 향후 독자 페르소나 기반 전략을 제품과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해 독자 경험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디 벨트, 뉴스레터로 구독 유지율 강화

악셀 슈프링거의 대표 매체인 디 벨트(Die Welt)는 총 22개의 뉴스레터를 운영하며, 대부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디 벨트는 뉴스·정치·금융뿐 아니라 건강,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해 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디 벨트는 뉴스레터를 구독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구독자가 뉴스레터를 1개 이상 구독할 경우 구독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구독자보다 3배 높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디 벨트는 온보딩 과정에서 뉴스레터 탐색과 구독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독자가 유입되는 웹사이트에서는 푸시 알림과 개인 맞춤형 뉴스레터 추천 기능을 제공해 독자가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 동정

강원일보, '2026 DMZ 문학축전' 개최
강원일보(발행인 박진오)는 화천군과 공동으로 '2026 DMZ 문학축전'을 개최한다. DMZ 문학축전은 △DMZ 문학상 △DMZ 문학캠프 △DMZ 백일장 등으로 구성된다. DMZ 문학상은 8월 7일까지 시와 산문을 온라인 신청 받는다. DMZ 문학캠프는 8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화천군 일원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DMZ 백일장은 8월 23일 화천체육관에서 열리며 시 또는 산문을 택해 현장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강원일보 문화교육부 033-258-1350.

경기일보, '제21회 과천토리배 전국 3×3 농구대회' 참가팀 모집

경기일보(발행인 이순국)는 오는 31일까지 '제21회 과천토리배 전국 3×3 농구대회' 참가팀을 선착순으로 120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중등부 48개팀 △고등부 48개팀 △대학 일반부 24개팀이며 대회는 8월 8-9일 이틀간 관문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과천시농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과천시농구협회 담당자.

경남일보, 월 구독료 1만3000원으로 인상

경남일보(발행인 고영진)는 7월 1일부터 구독료를 1만3000원(1부 가격 800원)으로 인상했다. 경남일보는 지난 2010년 8월 구독료를 1만원으로 조정한 후 16년 동안 구독료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인건비와 용

지대 등 부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제5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경향신문(발행인 박종성)은 오는 28일까지 충북 제천시에서 '제5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68개 고등학교 팀, 선수단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 제천시 제천종합운동장(결승전), 제천축구센터(예선·결선), 봉양건강축구캠프(예선·결선) 등 3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14일부터 예선경기를 시작해 20일부터 본선 토너먼트가 진행되며 28일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대회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제5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홈페이지(business.khan.co.kr/soccer) 참조.

국제신문, '제7회 부마항쟁문학상' 공모

국제신문(발행인 황문성)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7회 부마항쟁문학상'을 공모한다. 부마항쟁문학상은 부마민주항쟁이 상징하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제정됐다. 응모 부문은 △시·시조 △소설 △아동·청소년 문학 △기록문학 △신인문학상 등 5개 분야로 총상금은 1,900만 원 규모다. 접수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마산사무소에 하면 된다. 문의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항쟁문학상 담당 055-265-1018.

동아일보, 'D-Bridge 미디어 커리어 빌드업' 교육생 모집

동아일보(발행인 임채정)는 오는 21일까지 'D-Bridge 미디어 커리어 빌드업' 3·4기(부산·광주) 교육생을 기수별로 25명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디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실무 역량과 체계적인 커리어 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정은 △전문 심리상담사 1:1 상담 △동아일보 현장작가 특강 △미디어 현장 견학 및 실무 인턴십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한국능률협회 일자리창출본부 02-3274-9347.

매일신문, '이순신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매일신문(발행인 이동관)은 지난 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매일신문 창간 80주년을 기념해 '이순신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위기의 시대, 성웅의 지혜를 소환하다'를 주제로, 이순신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연설은 윤동한 서울여해재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원빈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와 이상규 이순신학교 교장이 강연했다.

문화일보, '문화미래리포트 2026' 개최

문화일보(발행인 김병직)는 8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미래리포트 2026'을 개최한다. '초지능 혁명 시대의 성장과 안보'를 주제로,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퍼드대 교수, 러셀

"시대 요구 부응하는 '미래형 언론'으로 도약"

중부일보 지령 1만호 및 창간 35주년 기념식



중부일보(발행인 최윤정)는 지난 8일 수원 라뷰포레 호텔에서 지령 1만호 및 창간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윤정 발행인은 기념사를 통해 "미디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

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담은 콘텐츠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형 언론'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단순히 디지털 전환만이 아닌 날카로운 통찰력, 독자와의 유연한 소통, 진실을 전달하는 깊이 있는 콘텐츠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월드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 소장,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등이 강연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mfr.munhwa.com) 참조.

세계일보, '2026 세계증권포럼' 개최

세계일보(발행인 박정훈)는 오는 22일 KRX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2026 세계증권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며,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 과제와 코스피 1만 시대로의 도약 방안을 모색한다. 문의는 포럼 사무국 02-2000-1574-5.

인천일보, '제26회 강화해변 마라톤대회' 개최

인천일보(발행인 박현수)는 9월

13일 강화함상공원에서 '제26회 강화해변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부문은 △하프코스 △10km 코스 △5km 코스 △10km 커플런 △5km 가족런이며, 선착순 350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홈페이지(www.ganghwamarathon.co.kr)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사무국 1866-1718.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보이는 데이터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맥락까지 잡아내는 힘!
올타리 안의 정보만이 아닌 살아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힘!
신문을 읽는 것은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본질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